

(주) 진 시스템

http://www.jinsys.com

웹시스템 개발전문

개발상담 : (053)241-3230

비트정보신문

(http://www.bitcom.co.kr)

2002년

9월

=학원광고지=

비트사이버교육센터

http://www.bitcyber.co.kr

온라인 인터넷 교육의 선두주자
지금 클릭하세요!!

SI업체 취업문 '활짝'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이 금융·해외사업 확대 등에 필요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오는 하반기 대규모 인력채용을 계획하고 있어 정보기술(IT) 채용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19일 삼성SDS·LG CNS 등 15개 SI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SI업체들은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하반기 중 1050명 안팎의 신입·경력 직원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채용규모를 검토중인 SK C&C 등이 하반기 채용계획을 확정하고 중견업체들도 수시모집에 나설 예정이어서 하반기 SI업계 채용규모는 최대 1500명선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LG CNS는 다음달부터 주요 대학을 순회하며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설명회를 개최하고 SI업계 취업의 물꼬를 연다. 오는 10월쯤 하반기 공채를 통해 신입사원 200명을 충원하고 수시전형을 통해 경력직 200명을 뽑는 등 하반기에 모두 4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상반기에도 이미 370명 정도의 신입·경력직원을 충원했다"며 "매출성장에 따른 앞으로 사업확대에 대비해 금융SI 분야를 중심으로 신입·경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정보기술은 9·10월 중 공공분야와 해외사업 확대차원에서 경력·신

입직원 250명을 충원하고 쌍용정보통신도 9~11월 중 프로젝트매니저 등 전분야에 걸쳐 100명 정도를 공개채용기로 확정했다.

해마다 500명 정도의 신입·경력직원을 채용하는 삼성SDS는 하반기에 수시모집을 통해 금융·컨설팅·해외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300명 정도 인력을 충원할 방침이다. 이 회사는 상반기 금융분야 경력직원을 중심으로 100명 가량을 충원한데 이어 하반기 전자계열 공채를 통해 신입사원을 선발하고 해외수인력 확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상반기 신입·경력직원 300명을 채용한 SK C&C도 현재 하반기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아직 채용규모는 미정이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100명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라이거시스템즈·위즈정보기술 등 중견 SI업체들도 수시모집을 통해 신규인력수요를 충당할 방침이어서 하반기 SI업계 취업문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SI업계 한 인력담당자는 "하반기에 기업들의 IT투자가 다소 살아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SI업체들도 성장차원에서 인력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특히 성장성이 높은 금융SI 분야 경력직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디지털타임스 발췌 -

대구, 경북 지역 벤처지원기관들, 해외 네트워크 구축 활발

대구경북 지역 정보기술(IT) 벤처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벤처지원기관들의 해외네트워크 구축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구테크노파크와 경북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등 벤처기관들은 입주 벤처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 벤처지원기관간 교류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처럼 지역 벤처지원기관들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활기를 띠는 것은 최근 지역 벤처기업들의 상당수가 자사가 개발한 제품으로 해외 마케팅에 나서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구테크노파크(사업단장 홍대일)는 대구 지역 벤처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및 교류채널 확보를 위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홍대일 단장을 포함한 협력시찰단을 중국 베이징 중관춘에 파견했다.

대구테크노파크는 이번 방문을 통해 중관춘과의 교류사업을 본격화하고 향후 지역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진출전략 관련 각종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일본 후쿠오카현과의 교류협력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7월 일본 후쿠오카벤처마켓에 지역업체를 참가시켜 현지투자자 및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대구테크노파크는 이밖에 일본 도야마현 신세기산업기구와의 교류협력사업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양 기관과 관련 기업·대학·공공시험연구기관 등의 정보 교환, 연구원 상호 파견, 공동 연구개발, 세미나 및 심포지엄 공동 개최 등의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원장 박광진)은 일본 이토가와현의 이치코라는 벤처지원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진흥원은 교류사업을 위해

올 하반기 상호 방문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각종 전시회와 세미나를 공동 개최할 방침이다.

또 올해 초부터 추진해온 중국과의 교류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어 양측 벤처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상호 협력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경북테크노파크(사업단장 김희술)도 올 하반기부터 해외교류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중국어와 영어가 능통한 전문인력을 채용, 입주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북테크노파크는 또 오는 9월께 중국 후베이성에 위치한 화중대학 신기술지원단을 방문, 상호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전자신문 발췌 -

< http://www.bitcom.co.kr >



비트컴퓨터교육센터

T. 242-3230~1 (경북여자고등학교 맞은편)

개강
9월 3일

웹디자인 그래픽과정

웹디자인란?

쉽게 말해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다. 홈페이지는 텍스트뿐 아니라 그림 또는 이미지, 애니메이션, 음성 동화상 등의 멀티미디어를 포함하는 데여러가지 정보와 매체를 통합한 형태의 홈페이지가 등장하는 시기에 이를 사용자로 하여금 좀 더 효율적이고, 이용하기 편하도록 구성하기 위해 웹디자이너가 등장하게 되었다. 최근 기업 및 단체들이 잇따라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웹 디자이너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전문인력은 현재 수십 명 뿐이기 때문에 웹 디자이너의 연봉은 올리기고 물질 스카우트전 까지 전개될 전망이며 실력만 인정받으면 학력, 나이, 성 차별의 벽을 뛰어넘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신종 하이테크 직업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웹 디자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3백여명 정도인데 대부분 임으로 일하는 사람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많아진다. 웹 디자이너는 수요에 비해 아직까지 국내에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거친 전문가는 많지 않다. 1백여개 업체 중 전문 웹 디자이너를 갖고 있는 경우는 10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실정에 맞추어 전문 웹디자인이라는 분야에 당신이 도전하거나 시

작하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어떤 과정이 좋을까요... 저희 비트학원에서는 전문적인 웹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웹디자인 과정 4개월과정을 소개합니다. 새롭게 전문분야에 도전하는 우리학생들을 위해 비트컴퓨터학원 담당강사 김미영과 함께 하자.

첫번째, 당신이 디자인을 전공하였다면 디자인관련지식이 있는 유리한 조건에서 웹디자인을 시작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웹디자인이라는 분야는 충분히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전문직종입니다. 실제로 업계에서 잘 나가는 웹디자이너의 대부분은 디자인전공자보다는 비전공자가 더 많다.

개인적인 생각에 그 이유는 웹의 특수성을 끊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웹 디자인은 디자인에서 중요시하는 그래픽적인 요소보다는 색감/창의적인 레이아웃/편집등이 우선하며 거기에 덧붙혀 사이트 제작경험에서오는 user를 향한 배려를 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전공자들도 이 모든것들을 익혀야 하기 때문에 디자인관련 지식은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비전공자가 얼마만큼 본인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 어느정도는 비전공에 대한 Gab을 커버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결정을 내리고 난 후에는 전공자나 비전공자 모두 웹디자인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 학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세번째, 학원을 이수하고 난 이후에는 웹디자인 회사에 취직을 하셔야겠지요? 회사에 취직하려면 웹디자이너는 포트폴리오가 필수입니다. 자신이 직접 작업한 사이트의 url을 기재한 이력서가 필요하겠죠. 필히 학원이수과정에서 적어도 자신의 홈페이지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합니다.

* 또한 웹디자인의 응용과목으로 플래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유명한 플래시 애니메이션중에는 엽기토끼라든지, 우비소년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전체적인 이야기만 재미가 있다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아주 쉬운부분입니다.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일러스트레이터를 알아야하며, 그렇게 그린 그림을 플래시에서 불러와서 움직임을 줘야한다. 비트컴퓨터에서는 플래시 1개월 일러스트레이터 1개월 과정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작업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망설이지 마시고 비트컴퓨터학원의 그래픽담당인 김미영에게 상담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 웹디자인 담당강사 김미영 -

JAVA NUX 과정

자바는 간단하다

복잡하고 어려운 훈련과정 없이 보다 쉽게 프로그램할 수 있고, 현재의 표준을 따르는 시스템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했다. C++을 이용할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것 조차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C++과 최대한 유사하지만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빼 버린 간략한 언어 자바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사실 C++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또한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은 자바 언어에 빠져 있다.

이점이 바로 자바가 업계에서 실제로 널리 쓰이게 될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실제로 자바는 매우 배우기 쉬운 언어이기 때문에 자바를 사용하는 개발자들은 일주일 안에 관리자에게 큰 어플리케이션의 프로토타입을 제공할 수 있고 또한, 전체 작업의 1/3을 초기에 수행할 수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자바는 크기가 작다

“자바가 간단하다는 또 다른 측면은 크기가 작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자바의 초기 설계 목표 중 하나가 작은 기계에서도 홀로(stand-alone)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보통, 웹 기반의 기술을 사용할 경우 56K모뎀과 같은 저속 통신망에서도 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자료의 크기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서버 쪽에서는 이런 이런 문제를 갖고 있지 않지만 클라이언트측에서 서버 쪽 컴포넌트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크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자바는 상당히 유리하다. 잘 설계된, 그리고 그 크기가 작은 자바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네트워크 상황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전송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바는 객체지향적이다

“간단히 말해서, 객체지향적(object-oriented) 설계는 데이터(=객체)와 그 데이터에 대한 인터페이스의 설계에 초점을 두는 설계 방법을 의미한다. 자바는 C++의 객체지향적 요소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객체지향적 설계의 전반에 대해서는 다음 강좌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자바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된다면 프로그래밍 생산성이 적어도 10배 이상 향상될 것이며 후임자가 코드를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객체지향의 장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것이다.

자바에서 객체지향을 구현하는 것은 명확하고 쉽다. 실제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객체지향 설계를 배우려고 할 때 자바만큼 좋은 언어도 없다. 처음부터 자바는,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을 잘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이다.

자바는 분산 환경에 적합하다

“자바는 HTTP나 FTP와 같은 TCP/IP프로토콜을 지원하기 위한 광범

위한 라이브러리 루틴을 가지고있다. 자바를 이용한 응용프로그램은 마치 자신의 지역 파일시스템에 있는 객체를 다루듯, URL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로 객체를 열고 접근할 수 있다.”

“컴퓨터는 네트워크이다”라는 말은 이제 진부한 말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자바를 이용하면 개발자들이 최대한 쉽게 네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자바는 네트워크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도구를 가지고 있다. 소켓을 구현한 여러 가지 modem언어들의 코드와 자바를 이용한 코드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자바는 보다 쉬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제공하고 있다.

자바는 안전하다

“자바는 네트워크으로 분산된 환경에서 사용될 의도로 고안되었다. 이를 위해 자바는 보안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왔으며, 이에 따라 자바를 사용하면 바이러스와 불법적인 시스템 침입자로부터 안전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때때로 자바의 보안성은 프로그래머가 하려고 하는 특정 행동을 방해하여 귀찮을 정도로까지 안전하지만, 허술한 보안으로 인해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상당히 보안이 뛰어난 자바에도 표준 규격을 피해 자신만의 통로를 구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자바는 구조적으로 중립이다

“자바 컴파일러는 특정한 컴퓨터 구조에서만 동작하는 바이트 코드를 생성하지 않는다. 자바 컴파일러가 생성한 바이트코드는, 어떠한 기계에서도 쉽게 해석될 수 있고, 또 실행될 기계에서 동작 중에도 쉽게 변환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처럼 자바는 코딩도 매우 재미있고 쉬우며 고성능을 제공하는 훌륭한 언어이다. 단, 자바의 이러한 기능을 십분 활용한 프로그래밍을 하기위해서는 객체지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세계에 대한 자바의 빠른 변화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은 “Introduction to Core Java”에서 자바소프트

(www.javasoft.com)의 자바 백서

(Java White Paper:<http://java.sun.com/docs/overviews/java/java-overview-1.html>)를 인용한 것입니다.

- 자바의 미래 -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로밍과 멀티미디어 메시지 교환(MMS)이 가능한 자바 지원 휴대폰이 미래의 무선 세계를 지배할 것으로 나타났다. ARC 그룹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모든 휴대폰이 5년 이내에 자바를 지원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2006년에는 11억 대 이상의 휴대폰에서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할 이유 중 하나는 이미 무선 커뮤니티 내에서 자바가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의 저자 스티븐 하틀리(Steven Hartley)는 “밸류 체인 상

의 모든 플레이어들이 3G로 마이그레이션하기 위해 자바 기술을 수용했고 자바 기술의 잠재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미 일본의 아이모드 사용자 800만 명이 자바 지원 휴대폰으로 업그레이드 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보고서는 전세계적으로 자바 지원 휴대폰이 대량 생산될 것이고 다른 모든 시장에서도 이러한 성공이 되풀이 될 것이다.

보고서는 2004년 까지는 다운로드 가능한 게임이 가장 인기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엔 위치기반(location-based) 서비스가 가장 인기 있는 애플리케이션 자리에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모바일 스트림(Mobile Stream)의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무선 업체가 자바로 이행하고 있듯이 현재의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는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로(MMS)로 바뀔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의 저자 사이먼 버킹엄(Simon Buckingham)은 “PC 시장에서 도스에서 윈도로의 이행이 중요했던 것처럼 모바일 시장에서 SMS에서 MMS로의 이행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MMS 시장이 임계점에 도달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이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MMS 보급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 중 하나로 MMS 지원 휴대폰의 출시 연기를 지적했다. 최초의 MMS 지원 휴대폰인 에릭슨 T68은 내년 1분기 말로 3개월이나 출시가 연기 됐다. 에릭슨은 상호작용성 문제로 출시를 연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에릭슨의 휴대폰 부문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MMS의 선두 주자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현재 실전 테스트하고 있는 MMS의 1/4 이상을 에릭슨이 지원하고 있다.

카너즈 인-스택 그룹은 한 연구에서 여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세계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이 점점 더 중요해 진다고 예측했다. 특히 보고서는 2005년 까지 이른바 “월드 폰” 기입자 수가 9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이렇게 되면 이동통신사업자가 로밍 서비스 부문에서 290억 달러를 벌어 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2005년에도 GSM 기반 기술이 여전히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상 자바언어에 대한 여려가지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현재와 다가올 미래에서 분명한 입지조건을 가진 자바언어를 할 필요성은 이미 검증이 된 상태입니다. 이에 부합한 개발자를 양성하기 위해 비트 컴퓨터 교육센터에서는 자바누스라는 과정에서 자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교육을 선택할것인지는 자유지만 그 선택이 헛 되지 않을 교육을 선택하셔야 겠죠.

비트컴퓨터 자바누스 전임강사 박중사는 감히 그 선택을 자바누스라고 하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JAVA NUX 담당강사 박기돈 -



온라인 인터넷 교육의 선두주자 ON-OFF 입체식 교육System 비트사이버교육센터

□ 이제 비트 컴퓨터 학원의 명강의를 인터넷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 <http://www.bitcyber.co.kr> >

